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시게 <11>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



나영준 VI센트럴동물병원 원장이 소형견 사랑이의 슬개골을 살펴보고 있다.

“돈 들면 어때...내 가족 반려견 건강 챙겨야죠”

고환암·전립선 질병·자궁축농증 등 예방 위해 중성화 수술
소형견에 자주 발생하는 ‘슬개골 탈구’ 방지엔 수술적 치료
생후 3년후부터 치아건강 위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해줘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장은 이어 “1기인 경우 수술적 치료를 권유
하진 않지만, 한번 탈구가 되면 계속 빠지는 경
우가 많고 1기가 났다는 것은 2기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임상가로서 지켜봤을 때
빨리 수술을 시켜줬을 때 예후가 훨씬 좋았다”고 덧붙
였다.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다리로 보
행할 수 있게 학습을 시켜야 한다. 앞다리를 들어서
뒤통자로만 기립을 하거나 침대나 소파 위를 점프
해서 오르내리는 것도 막아준다. 다리에 하중을 받
지 않도록 체중관리도 필수다.



치아 상태를 검사받고 있는 4살 사랑이.

◇강아지도 스케일링을 하나요
“강아지도 스케일링을 하나요?” 비반려인은 물론
반려인들조차 놀라서 되묻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네.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스
케일링을 하면 좋습니다”이다.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으며 생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치
석이 쌓일 수밖에 없다. 칫솔질을 자주 시켜준다거나
보조적으로 치아관리를 할 수 있는 간식을 선택하
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치아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견 스케일링은 강아지들의 상태에 따라 다르
겠지만 첫 스케일링 시기는 보통 생후 3년 후 정도
로 볼 수 있다. 사료만 먹는지, 고기나 간식, 과일을
병행해서 먹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어 집에서 견주가 칫솔질을 얼마나 자주 해주느냐
에 따라서도 스케일링 하는 시기가 6-7년까지 늦춰
질 수도 있다.
“반려동물의 스케일링은 눈으로 보더라도 치석이
많이 끼어있다 싶으면 빨리 해주는데 좋습니다. 치
주염이 오면 잇몸이 탈락하고 치근이 노출되면서
영구치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치주염에
걸리면 냄새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치석
자체에 균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치석을 때어
주지 않으면 잇몸에 염증 반응이 오고, 간혹 음식을
먹을 때 치석이 조금씩 탈락해서 삼키게 될 경우 2
차적으로 다른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반려견의 건
강에 도움이 됩니다.”
/글·사진·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간강하게 키우는게 최고, 몸이 아플 땐 치료해야
죠”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는 우스갯소
리가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두고 나온 애
기로,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키우기엔 생각보다 많
은 비용이 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비용 문제는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남들보다 더 좋은 용
품을 사주거나 더 좋은 사료를 사 먹이지는 못하
더라도 아팠을 때만큼의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게 모
든 반려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사람과 달리 동물은 의료보험이 안되니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 수술로 이어질 경우 수습만원에서 수
백만원이 필요하기도 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

치료가 필요한 고비용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
으며 치료의 필요성과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영준 수의사(광주 VI센트럴동물병
원 원장)를 통해 알아본다.

◇중성화수술 꼭 해야할까

반려견 사람을 데려온 후 첫 번째 가족회의 안
건은 ‘사랑이의 중성화 수술’이었다. 찬성과 반대
로 나뉘었는데 개복 수술에 대한 우려와 비용문제
로 반대가 셋, 향후 더 큰 질병의 예방 차원에서 찬
성이 한명이었다. 3:1로 반대가 우세였지만, 수술
비를 담당하는 ‘찬성 1인’의 강한 의지로 사랑이는
생후 7개월에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받았다.

올해 11살인 희망이는 지난해 자궁축농증 수술을
받았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고 6년 전 2세를
출산한 경험이 있던 요크셔테리어다. 언제나 활달
했던 희망이는 어느 날 힘을 쓰지 못하고 축 늘어지
더니 고열 증상을 보였다. 병원을 찾아가서 받은 진
단은 자궁에 세균이 감염돼 염증을 일으키고 고름
이 쌓이는 ‘자궁축농증’이었다. 희망이 견주는 바로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비용은 상당히 고가였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찬
반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동물의 본능을 인간이 강
제로 막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환경이 변했
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
지 장점을 위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간혹, 동물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수술을 강
요한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반려동물 중성화의 가장 큰 이유는 향후 발생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마음껏 교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
는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효과도 있다.

“행동학적으로는 중성화를 하지 않은 수컷 강아
지들의 경우 소변 냄새가 진하거나 영역표시를 하
려는 욕구가 커서 곳곳에 소변으로 마킹현상을 하
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수술을 선택하기도 합니
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고환암, 전립선비대
증, 전립선종양 등 생식기 관련 질병의 위험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암컷의 경우 자궁축

농증이나 자궁내막염, 유선종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술을 시키려는 견주들이 많습
니다.”

나영준 원장은 “암컷의 경우 배를 가르고 복강을
열 다음 자궁 난소를 적출하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해
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비용 문제가 겹쳐 수
술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나 원장은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기도 중
요함을 강조했다. 2세를 계획하지 않고 중성화를 시
킬 생각이라면, 암컷의 경우 첫 생리를 시작하기 전
인 생후 7-8개월 무렵, 수컷의 경우 발육상태를 보
고 양쪽 고환이 모두 내려왔을 때 수의사와 적절한
시기를 상의할 것을 권유했다.

◇슬개골탈구 수술·예방

슬개골 탈구는 국내 선호 반려견 상위권에 몰린
소형견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정형외과적 질병이
다. 슬개골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작은 뼈로, 본
래 위치에 있지 않고 관절에서 어긋나면서 탈구가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슬개골 탈구’라
고 한다.

선천적으로 활차골(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도록 움푹 파인 구조)이 얇은 소형견이나 과도한
운동, 행동이 거친 강아지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통증이 심해지고 습관적인 탈구가 발생할 경우 수
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
에 견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기도 하다.

슬개골은 탈구 진행상태에 따라 1-4기까지 나뉜
다. 보통 2기 이상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하지
만 진행형 질병이기 때문에 수술을 생각하는 견주
라면 더 심해지기 전에 일찍 수술하는 것을 추천한
다.

나 원장은 “슬개골 탈구는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방법에 따라 수술비용이 크게 차이
가 난다”며 “활차골을 깊게 파주는 성형만 할 경우
비용이 절감되고, 슬개골이 움직이지 않게 핀을 박
거나 와이어를 착용하게 되면 수술적 기법이나 재
료값이 추가되기 때문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차이

망치는 올해로 11살이 된 말티즈 남자아이
예요. 엄마가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의 마르코
트조,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저
희집 망치는 노래를 합니다.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그날 하루 학원에 가장 먼저 온 친구
의 피아노 소리에만 반응을 보여요. 얼굴을
높이 들고 목청껏 노래부르는 소리에 ‘망치
늑대살’이 나오기도 했어요. 덕분에 원생들이
망치 노래에 반주를 하고 싶어 서로 1등으로
학원에 오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는 한 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누
군가의 피아노 소리가 먼저 들렸네요. ‘망
치, 노래했어?’ 묻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슬퍼보이던지요. 지난 스승의 날에는 학생들
이 ‘망치를 11년동안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되레 편지를 써줘서 또한번 웃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오면서 마음 아팠던 적도 많았
어요. 3년전에는 호르몬에 이상이 와서 갑상
선 저하증 진단을 받았어요. 3년째 갑상선 조
절 약을 꾸준히 먹고 있고 나이가 있나 보니
심장약도 함께 먹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왼
쪽 뒷다리 뼈가 세조각으로 부러지는 사고가
나서 세 번의 큰 수술과 6개월 입원 치료를 하
면서 엄마의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김은애·광주시 서구 농성동)

※반려동물의 사진과 이름, 나이, 특징, 연락
처 등 간단한 소개를 전자우편(yoonsarang
_love@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우리집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피아노 반주에 노래하는 말티즈 ‘망치’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